

전통시장 전기안전 강화한다

송기현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kW이상 전통시장 점포점검 정부가 관리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정부가 실시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1일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kW 이상 규모의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대해 정부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정부가 전기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전기안전점검은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이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이 같은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식 결과 노후화된 전기 설비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전체 화재 가운데 전기가 원인인 사고가 47.9%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이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를 포함토록 해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기현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원인은 노후설비로 인한 전기합선 탓으로

밝혀졌다. 이는 곧 전통시장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작년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소방시설협회, 내달 19일까지

소방시설협회가 전국 13개 시도회를 통해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의 실적신고 접수를 한다.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김태균)는 '2018년도 소방시설공사사업 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기한은 다음달 19일까지로 서울시회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번 실적신고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고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소방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력, 경력(공사업 영위기간), 신인도 등 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이다. 실적신고는 협회 홈페이지(www.ekffa.or.kr) '인터넷 실적신고'를 이용해 접수기한 내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친 후 관련 서류 일체를 관할 시도회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수수료와 통상회비는 서류 제출 시 함께 납부하면 된다 고 소방시설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업계 발전·회원 권익 보호에 최선

서울남부회, 제39회 정총...정대의원 17명 선출

11일 서울남부회(회장 채진석)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군회관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과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이형주 분지 사장을 비롯해 김태암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장, 최덕기 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등 내외빈과 협회 전·현직 임직원과 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남부회는 이날 총회 안건으로 2018회계연도 대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채진석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한 17명의 정대의원과 후보대의원 7명을 선출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공유하고 전기공사업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에 포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채진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찾아주신 내외귀빈과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해 추진한 많은 행사들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인 참여 덕분에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올해도 회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재선 중앙회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업계의 성장은 회원님들의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 협회는 회원사의 땀방울을 새기고 이를 통해 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 부서별 전문성을 강화해 각종 현안에 대

한 선제적인 대응은 물론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업계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성관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 여건으로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여파는 우리 전기공사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좋은 기업은 불황에 오히려 실적을 올린다고 한다. 남부회 회원 분들이 올해 좋은 실적을 올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주 분지 사장은 "지난 1년간 회원 권익과 전기공사업계 발전을 위해 애쓰신 채진석 회장님과 남부회 임원,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5개 테마'로 새 가치 창출

국토부 "공항 본연의 역할 뛰어넘은 가치 만들 것"

오는 18일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5개 테마를 통해 일반적인 공항 이상의 가치 창출에 나선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공항 이용객 입장의 다양한 공간을 구성·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항공기를 이용한 이동을 위한 공간이라는 공항 본연의 역할을 뛰어넘은 가치를 이뤄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정에서 ▲공간 배치에서 이용객을 먼저 생각하는 공항 ▲세계 허브공항으로서 잠시 머무르는 사람도 배려하는 공항 ▲자연과 함께 살아숨쉬는 푸르른 하늘과 맑은 공항 ▲전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구를 살리는 공항 ▲문화와 어우러지는 공항 등 다섯 가지 테마를 담았다고 전했다. 먼저 국토부는 제1여객터미널을 운영하며 파악한 공항 이용객의 이용경향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용객 동선을 개선,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제2여객터미널은 층고를 높여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출구심

사 운영 효율도 높였다. 세계 허브공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환승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승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했다. 환승 카운터와 환승 보안검색대 근접 배치를 통한 동선 최소화하고 휴식공간 제공 등 환승 대기시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

항공보안에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터미널 건물 내에 작은 공원을 여럿 조성해 자연의 '치유' 기능도 적용했다.

대규모 건축물을 24시간 운영하며 소비되는 에너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제2여객터미널에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률을 제1여객터미널과 비교해 40%가량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예비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제2여객터미널 지붕 위에는 태양광전지와 제2 교통센터 지붕 위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전면 부착했다. 공항 주변 유류차 내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 단지도 조성했다. 윤대원 기자

전기기술인협회 정기총회

김종원 현 회장 연임 성공

서울남시회, 강영기 감사 선출

김종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울남시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전기기술인협회 서울남시회는 11일 서울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현 서울남시회 회장 김종원 정우디씨 부사장을 시회장으로 선출했다.

총 624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박용덕 후보가 229표, 기호 2번 김종원 후보가 393표를 얻었다. 무효는 2표가 나왔다.

이로써 김종원 후보는 164표라는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돼 앞으로 3년간 시회를 더 이끌게 됐다.

이와 함께 강영기 조은전기안전관리 대표가 3년간 감사직을 수행

한다. 이어 서울남시회는 시회장(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 11명의 대의원도 선출했다.

또 이날 서울남시회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지지예산(안)을 확정하고, 전력산업 발전과 협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하영복 에디슨전기 대표 만장일치 추대

서울동시회, 서울 4개시회 유일하게 경선 안해

하영복 에디슨전기 대표가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울동시회장에 추대됐다. 전기기술인협회 서울동시회는 11일 서울 목동웨딩그룹위더스 중앙 컨벤션홀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영복 에디슨전기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해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시회장에 추대됐다. 동시회는 서울 4개시회 중 유일하게 경선을 거치지 않고 회장을 뽑았다. 이와 함께 박재길 중계·경남·롯데상아 아파트 관리실장과 안승권 대화전기이엔지 대표가 3년간 감사직을 수행한다. 이어 서울동시회는 시회장(당연

직 대의원)을 포함한 9명의 대의원도 선출했다.

또 이날 서울동시회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지지예산(안)을 확정하고, 전력산업 발전과 협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이석희 기자 xixi@



www.tyjomyeong.kr

방수조명의 중심이 되는 태양산업조명

완전방수 비상조명(IP68)
특허 10-1191587호

TY-302E

- 전원차단 및 비상시 2시간 사용
- 전원 AC100~220V LED15W
- 삼성SDI 리튬이온 (10,400mA)

2구 방수 콘센트

-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 방수형 및 고품질
- 이동형 분전함박스 사용
- 16A 250V

LED완전방수등(IP68) TY-302 LED20W

TY-302

-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뛰어난 내구성으로 건설 및 산업현장에 적합
- 방수형 콘센트 풀림방지 LOCK 장치
- 사용전압 16A 250V (접지형)
- 사용전선 0.75m² × 3 / 1.5m² × 3C / 2.5m² × 3C

방수 락커형 플러그 콘센트

캡형 대모갈/E-39 (KC인증제품)

캡형 소모갈/E-26 (KC인증제품)

주요제품 완전방수등(LED형)-생활방수등(삼파장형) - 다용도 생활방수등 - FPL 다용도 방수등 - LED LINE BAR 방수형 소켓(소모갈) - 캡형소켓(대모갈) - LED지중 수중등 - 옥외용 완전방수등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301 동양빌딩 5층
대표전화 : 032-683-4501 기술연구소 : 032-682-4501
Fax : 032-683-4502 한글도메인 : 선아이.한국/태양산업조명/한국/방수등한국